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

“모든 세력 아우를 유일 후보” “넓은 정치 세대교체 이룰 것”

인구·재정 열악한 지역 집중 지원
호남이 희망 ... 사당화 막아 달라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서의 비전은.
▲새누리당의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고, 좌우, 동서, 남북, 빈부, 노사를 두루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갖겠다고 감히 생각한다.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필승할 수 있고, 국민 통합을 통해 선진통일강국으로의 길을 열어 가겠다.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내수를 키워야 대한민국에 앞날이 있다. 언제까지나 수출에 의존해 경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세계적인 기업을 지원하고 키워서 국제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국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와 내수 시장을 키우고 국민 소득을 높여야 꾸준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국민 통합과 지역 갈등 해소 방안은.
▲누구나 열심히 하면 생계 유지와 미래 설계가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열심히 공부하면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은.
▲모든 지역에 각자의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예산과 권한이 없는 반쪽짜리다. 지방재정 확충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시계획 등 지역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호남과 같이 인구·재정면에서 열악한 지역은 중앙에서 중장기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세론에 대한 입장은.
▲과거 이회창 후보의 두 번의 대세론은 지금 박근혜 대세론보다 더 견고했다. 하지만 결과는 두 번 모두 실패했다.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다. 박근혜 후보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안주한다면 '이회창 대세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나는 다르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수도권외의 지지가 있고, 짧은 세대대로 부단히 소통하고 있다. 7년 동안 공장 생활을 하면서 노동 운동에 투신했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2년 반 동안 옥고를 치렀다.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 중간층, 젊은 세대, 민주화 세력의 일정한 지지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광주·전남지역에 제시할 비전은.
▲사람이 오가기 편해야 돈이 오기도 쉽다. 호남고속철도를 조속히 완공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숙원 SOC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 광주의 미래 주력 산업인 관광업을 진흥시키고, 도청이 이전한 무안과 인근 목포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 아울러 영남 F-1 대회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호남은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가가 가혹했다. 그런 호남에 더 많은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민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 광주·전남은 언제나 희망이었다. 새누리당이 사당화와 정당 민주주의의 말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광주·전남 지역민과 당원동지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일보는 16일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김문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에 대해 공동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오는 20일 대선 주자 선출을 앞두고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두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과 국민 통합 및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을 소상하게 제시했다. 특히, 두 후보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 받은 광주·전남 등 호남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김태호 후보는 경남 거창에서 소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 거창 농림고와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김 후보는 1992년 아버지 친구인 당시 이강두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지난 199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에 당선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4년 뒤에는 거창군수 선거에 당선됐고 다시 2년 뒤인 2004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도전해 승리하는 등 승승장구를 달렸다. 또 36세에 도의원, 40세에 거창군수, 42세에 도지사가 되면서 최연소 군수, 최연소 도지사 등 '최연소' 꼬리표가 붙어다녔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 63.5%로 김두환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를 크게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김 후보는 2010년 8·8개각 때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중에 자진사퇴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후 중국 베이징 유학길에 올랐으나 여권의 권유로 귀국해 2011년 경남 김해를 보궐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4월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득권층 양보해야 양극화 극복
대세론 안주 땀 또 실패 불보듯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서의 비전은.
▲대한민국은 길을 잃고 있다. 국민의 80% 가까이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다. 여야, 동서, 보수와 진보로 편 갈라 싸우는 정치, 증오와 분열의 낡은 정치 때문이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경제 양극화에서 비롯된 사회 양극화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격차를 줄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경쟁은 인정하되 승자와 패자 모두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양보가 있어야 한다. 정치, 경제, 노동,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 통합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은 있다면.
▲지역 갈등은 한국 사회의 통합과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갈등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정치권이 현재의 구조가 자신들에게 본질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혼합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룰 방안이 있다면.
▲지역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진리를 잊어서 안 된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와 지역민이 주체가 돼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를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자치입법과 지방재정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신규 지방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 지방행정구조 개편 등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세론에 대한 입장은.
▲새누리당은 대세론에 안주하다가 두 번의 실패를 맛본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대세론에 기대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면 국민 감정도, 국민 공감도 절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후보자와 당원들도 변해야 한다.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광주·전남에 제시할 비전은.
▲광주시가 오는 2014년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도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에 나서겠다. 또 인본민주도시, 문화예술도시, 녹색환경도시, 국제중심도시, 첨단과학도시 등의 면모를 갖춰 국제 창조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전남은 동북아 생태 및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다. 전남도가 오는 2016년까지 133개 사업에 약 3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관광개발계획을 세운 만큼 관련 예산확보 등의 지원에 나서겠다. 세계적 모티드스포츠 경기인 F1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역민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남은 정치는 스스로 몰라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김태호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희망의 다리가 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낡은 정치의 세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국회의원·지사... 운동권 '우파' 정치인

김문수 후보는 '운동권 출신의 '우파' 정
■ 걸어온 길
김 후보는 경북고 3학년 때 '3선 개헌' 반대 데모를 주도했다가 무기정학을 받았으며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로는 학생운동에 투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됐다. 이후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보조공으로 일했으며 이어 전 국립노동조합연구소 연구원, 노조위원장 등을 지내며 노동운동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1980년에는 남영동 대공본실로 연행돼 심한 고문을 당했고, 1985년에는 전태일 기념사건으로 사무국장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그는 1990년 제14대 총선에 민중당 전국구 후보로 출마했으나 실패했으며 1994년 당시 문민계약을 추진하던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민주당에 입당하며 보수정당권에 발을 들였다. 15대 총선 때 국회의원회의 박지원 후보를 꺾고 당선된 뒤, 경기 부천 소사에서 내리 3국을 했으며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2010년엔 통합진보당 유지 민 공동대표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서민적 이미지가 강점이나 전국적 인지도가 낮고 대중성도 부족한 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연소' 도지사... 19대 총선 재선 성공

김태호 후보는 경남 거창에서 소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 거창 농림고와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했다. 김 후보는 1992년 아버지 친구인 당시 이강두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지난 199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에 당선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4년 뒤에는 거창군수 선거에 당선됐고 다시 2년 뒤인 2004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도전해 승리하는 등 승승장구를 달렸다. 또 36세에 도의원, 40세에 거창군수, 42세에 도지사가 되면서 최연소 군수, 최연소 도지사 등 '최연소' 꼬리표가 붙어다녔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 63.5%로 김두환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를 크게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김 후보는 2010년 8·8개각 때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중에 자진사퇴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후 중국 베이징 유학길에 올랐으나 여권의 권유로 귀국해 2011년 경남 김해를 보궐선거에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4월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 큰 세상, 깊은 감동의 서비스
다와옥션 www.dawauction.co.kr

다와옥션 부동산 경매학원
호남유일의 정통 경매학원!
불만족시 수강료 전액환불!

실전기반반 : 매주 수요일
오전 : 10시 30분/오후 : 저녁7시 (3개월 16주 과정 25만원)
강사 : 이 정 석 교수(저자직강)

목요일특강 : 매주 목요일
오후 : 7시(교육참가시 확인요망)
(교재비포함 수강료는 1~2만원)
과목 : 세무,민법,부동산정책,기타
기본경매와 보수교육

수시모집중(기수별 선착순 30명)
국내유명강사 초청 특강(강좌제)

문의 062-352-8589 (010-8004-6767)
남구 월산동 돌고개역 1번 출구/ 신한은행 4층(구.전남경찰청 4거리)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도

- 오양시설용 건물 동구 대지197 건평807 법인이전할 9억
- 오양시설용 주택, 화순군 도곡 대지 302평 건평 505평 4억7천
- 충장로 슈퍼, 대지 27 건평 30 공사지 1억9200 매도 1억7천
- 오지동 소방서옆 3층 상가주택 대지1, 건평105평 3억4천
- 유동 로터리 대지 240 건평 818 대출 18억, 방원, 사옥, 오양시설
직할법인인전 24억
- 누문동 일고 부근단층 상가 주택 대지 36 공사지 1억
2500상가는 임대중이고 주택은 공실 1억
- 양동식당과 여관 대출 2억 대지 89건평 256 교환가능 3억2천
- 동구 금동 대지 100평 6층 건물 416평 5억 7천
- 북구 화양동 땅 719평 주택 2채 있음 사할등 적합
- 담보용 풀린, 춘천시 집합건물권의 지하 377평 병상사 34966천
감정12억 9천 법인이전 5억 8천

나대지

- 충장로5가 상업지역 104평 주택은 철거해야함
원룸,생활주택적합 공사지가에 매도2억9500만원
- 공장부지 광명군 해보면 1725평 국도 옆했음 2억8천
- 중동동 상업지역 106평 3거리 코너 공사지가 4억7천 매도 5억4천
- 공장부지 나주시 반남면 잠동지 5160 5억4천
- 계림동 상업지역 155평 공사지가 6억3300 매도 5억
- 신안동 전남대 앞 4거리 대로면 상업지역 240평 생활주택
형 오피스텔 적합 공사지가 9억 4천 매도 7억7천

시골주택 및 주택지

- 화순 남면 대지76 주택은 수리해야함 1500만원
- 장성 서삼면 금계리 대지 3226평 건평 47 교환가능 1억3천
- 보성군 대원사 입구 광주에서 25여분 거리 경관좋은
땅 505평 평당 17만원(3600만원) 예술인 창작작업에적당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공용센터 옆

수원지구 상가임대분양

1층~7층 (20평~210평)
분할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학원/병원
한의원/독서실
편의점/약국
분양임대시
특별할인중
교환,매매전문

상가
3억~100억까지
교환및 매매합니다.
토지/아파트/상가/기타

주)신한아이디
062)527-7600

역세권 상업지 토지구매

운천역
1분 코너

중심상업지
250평

최고위치!!
상가, 도시형
오피 적합
★매가 상담부 결정★
원룸매매(신축)

전대, 조대
쌍촌동
수원지구
5억부터
12억까지

062)961-3377

매매교환 전문 빌딩, 모텔, 땅 상가 건물

매수 매도 대기중

■건축상담■
예산 부족으로 건축을 그만두고
계시는 분! 부지를 가지고도 경협이
없어 건축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
호텔! 무인텔! 사무나!
빌딩! 주택! 상가건물!
건축비, 시공비 없어도
신축에서 준공, 분양까지!!!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지금 상담해 주십시오.
신속한 건물 신축 공사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상담받고 있습니다●

■구 입 ■
함께 할 수 있는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최기철 공인중개사
광주시 광산구 수원동 965-201호
062)956-6660
010-2139-6255
FAX. 956-6608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광교로(신기빌딩대매)

-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80평 건평 873평
-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501평 건평 1415평
- * 서구 상무지구 상가빌딩
대지 150평 건평 884평
- * 서구 회정동 로마노이티브문 모텔
대지 99평 건평 344평 료 00실
- * 남구 진월동 상가빌딩
대지 620평 건평 2181평
- * 북구 두암동 선대정문 상가빌딩
대지 156평 건평 600평
- * 북구 두암동 동강대후문 원룸
대지 71평 건평 98평 방15실
- * 광산구 우산동 상가빌딩웨딩홀
대지 1741평 건평 94000평
- * 광산구 신항동 보전대 부근
대지 630평 건평 460평
- * 나주시 남내동 상가빌딩
대지 119평 건평 210평

광고물건 (토지대매)

- * 상무지구 치평동 대지 1000평
- * 서구 서창동 대지 948평
- * 북구 두암동 대지 500평
- * 광산구 송산유원지부근
대지11010평
- * 광산구 수원동 대지 10,737평
- * 나주 금천면 왕곡리 대지 3,200평
- * 나주 왕곡면 옥곡리 대지1,900평
- 최상의 전월세권 적합 부지 매매
- * 무안군 해제면 창매리
지도방향 바닷가부근
대지2,340평
- * 창성군 남면 행정리 대지 500평
- * 광안동 덕래리 대지 2,800평

956-6660-010-2139-6255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신영사건내)